

이랜드몰, 16일까지 최대 90% 할인행사 진행

이랜드몰이 16일까지 '반값위크'를 진행한다. 시간대별로 인기 브랜드 상품을 절반 가격에 판매하는 '릴레이 반값', 매일 다른 20개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릴레이 극한특가',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최대 90% 할인 판매하는 '심야 타임세일' 등으로 구성했다. 정정욱 기자



비즈 포커스 | 빅데이터 기업으로 도약 노리는 카드업계

‘빅데이터 컨설팅’으로 新수익 확보 나선다

고객 소비패턴 분석한 데이터 활용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등록해 거래 신한-비자, 데이터 기반 사업 MOU BC카드의 빅데이터 테마 공모 진행

카드업계가 기존 단순결제사업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기업으로 도약을 노린다.

수수료와 이자 중심의 기존 수익모델에서 벗어나 카드사가 가진 데이터를 가공·활용해 수익을 내는 체질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하루 6만여 건의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만큼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데이터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고객 소비패턴 데이터를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등록해 거래하고 있다. 금



빅데이터 기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오른쪽)과 크리스 클락 비자 아시아태평양 총괄 대표. 사진제공 | 신한카드

용데이터거래소는 금융데이터를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금융사가 주요 참여 업체인 가운데 이중 신한·KB국민·삼성·BC·하나카드 등 카드사들의 데이터 등록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기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활발하다. 신한카드와 비자(VISA)의 협력이 대표적으로 정부 기관 및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기반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결제와 소비 동향 모니터링 등 데이터

솔루션 개발도 공동 진행한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양사의 데이터 활용 능력을 결합해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 민간 기업에 활용 가치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

빅데이터를 테마로 한 공모전도 한창이다. BC카드는 20일까지 ‘2020 금융빅데이터 챌린지’를 개최한다. 카드 매출, 아파트 시세, 부동산, 맛집, 유동인구 등 공모전 용도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참가자가 이를 분석해 제조기업 투자 매력도, 부동산 시세,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 예측 등에 대한 결과물을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개인 또는 팀(3명 이내) 단위로 참여 가능하며 창의성, 사업성, 완성도 등이 평가 기준이다. 삼성카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제1회 데이터 분석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롯데홈쇼핑 ‘대한민국 광클절’, 박세리 모델

롯데홈쇼핑이 ‘대한민국 광클절’ 홍보대사에 골프선수 박세리(사진)를 발탁했다.

16~25일 진행되는 대한민국 광클절은 롯데홈쇼핑이 마련한 하반기 대형 쇼핑 행사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적 인지도와 호감도가 급상승한 박세리와 40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 파격적 쇼핑 혜택과 함께 위로와 희망을 전할 계획이다. 김종영 롯데홈쇼핑 마케팅 부문장은 “미디어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화 콘텐츠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박세리를 모델로 내세운 ‘대한민국 광클절’ 영상과 행사가 고객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전라남도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라남도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 지원,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여행 상품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P&G 다우니, 초고농축 섬유유연제 출시



한국P&G 다우니가 초고농축 섬유유연제(사진)를 내놓았다. 초고농축으로 자사 비농축 제품 대비 3분의 1집만 사용해도 상쾌함이 오래간다. 섬유 속 냄새 방지 기능

에 상쾌함의 지속성을 향상시켰다. 정전기 발생 방지 기능으로 외출 후 옷에 미세먼지를 묻혀오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환절기에 소비자의 빨래 고민을 덜어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정욱 기자

“반려견과 함께 ‘2020부산펫쇼’ 구경오세요”



KNN이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2020 부산펫쇼’(사진)가 23일부터 사흘간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120여 개의 업체와 200여 개의 부스 규모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반려동물 사료를 비롯해 용품, 서비스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0 부산펫쇼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완료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행사 관계자는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펫쇼이니만큼 반려견 사료, 간식, 이동장 등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한다”며 “전시장 내에 반려동물 행동 교정 상담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신신제약, 세종시문화재단에 1000만원 후원



신신제약은 세종시문화재단에 문화예술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유로운 여름휴가를 보내지 못한 이들을 위한 여민락(Rock) 페스티벌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행사를 취소하고, 향후 세종 시민의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편 신신제약은 세종첨단산업단지에서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세종 공장을 건립하고, 지난해 9월 준공했다. 신신제약 세종 신공장은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의 생산 설비와 시스템을 갖춰 이전보다 최대 5배까지 생산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규모다. 정정욱 기자

한독·제넥신 참여 ‘美레졸루트’, 4100만 달러 투자 유치

희귀질환 관련 혁신적 치료제 개발사업 투자유치로 나스닥 상장 가속도

한독과 제넥신이 최대주주인 미국 바이오벤처 레졸루트가 8일(현지 시간) 사모 형태로 4100만 달러(약 47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레졸루트는 희귀질환 관련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바이오벤처로, 한독과 제넥신이 2019년 공동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번 투자 유치는 미국 캡 캐피탈이 주관한 가운데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 카우푸만, 서베이어 캐피탈, BVP 파트너스 등의 참여로 이뤄졌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는 전 세계적으로 1조 6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중 카우프만 펀드는

77억 달러(8조9000억 원)규모의 펀드다. 이번 투자금은 레졸루트가 주력하고 있는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RZ358’의 미국 및 유럽 임상 2상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를 위한 경구 혈장 칼리크레인 억제제 ‘RZ402’의 미국 내 임상 1상에도 사용된다. 레졸루트는 이번 투자 유치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나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RZ358’은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소아질환 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독은 ‘RZ358’과 ‘RZ402’에 대한 한국 내 상업화 권리를 9월에 획득해 당뇨와 희귀질환 파이프라인을 강화했다.

정정욱 기자 sadzoo@donga.com

KB국민 ‘S.I.N.G프로젝트’ 2기 모집

KB국민은행이 16일까지 ‘KB금융캠퍼스 S.I.N.G프로젝트’ 2기를 모집한다. 3년 차 이상의 사회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교육 코칭 프로그램이다. 금융과 경영 멘토링을 통해 사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

원한다. 1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해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우수팀을 선발해 총 3000만 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참가기업 중 KB금융과 협업 가능한 우수기업은 KB이노베이션 허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정욱 기자



“청정 제주 광어, 안심하고 즐기세요” 홀플러스가 제주산 광어 품목에 대해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했다. 고객의 안심 먹거리를 확대하고 제주산 광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소비 촉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도입 기념으로 28일까지 제주산 광어회를 300g당 1만9920원에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홀플러스

‘제작결함’ 현대·기아·BMW 등 7개사 차종 5만대 리콜

‘신형 카니발’ 연료 누수로 화재 위험 아우디·재규어, 과징금 부과 계획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독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4개 차종 4만99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KA4) 등 3개 차종 7427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 부품이 느슨하게 체결되어 연결부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35개 차종 3만5420대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타이밍체인이 끊

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4개 차종 3154대는 앞쪽 동력 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품(유니버설 조인트)의 경도 부족으로 지속 운행 시 해당 부품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독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

매한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4개 차종 2854대는 좌석안전띠 해제 시 경고음이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리콜 대상이 됐다.

이들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54대는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